

서울시직 7급 시험 보시느라 고생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해설은 '에듀윌 홈페이지'를 통해 해설 강의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정답 ④

④ 'ㄹㄱ'은 'ㄱ'이 남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용언 어간 말음 'ㄹㄱ'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예외적으로 ㄹ이 남는다. 따라서 '말꼬'가 표준발음이다.

오답 해설

① 'ㄹㅌ'은 'ㄹ'이 남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할따'가 표준발음이다.

② 'ㄹㅂ'은 'ㄹ'이 남는 것이 원칙이나 어간 '뱃-'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예외적으로 'ㅂ'이 남는다. 따라서 '뱃:께'가 표준발음이다.

2. 정답 ③

③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성분이 꾸며 주는 관형절의 문장성분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관계 관형절'이다. '영수가 애쓴'의 수식을 받는 '사실'은 관형절 '영수가 애쓴'의 문장 성분이 아니다. 따라서 관계 관형절이 아닌 '동격 관형절'이다.

오답 해설

① '음식'은 관형절의 목적어이다.

② '질문'은 관형절의 목적어이다.

④ '소문'은 관형절의 목적어이다.

3. 정답 ③

③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를 나타내는 의미 외에도 부가적인 의미 즉 '양태적 의미'를 갖는다. ③번 문장의 '-겠-'은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 '-겠-'은 모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4. 정답 ①

오답 해설

② '가디건->카디건'

③ '초콜렛->초콜릿'

④ '팡파레->팡파르'

5. 정답 ③

③ '푹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어들은 모두 '깃발'의 의미를 갖는다. 맥락을 보면 '푹대'는 '깃발'이 걸려 백로처럼 날개를 펴는 곳이다.

6. 정답 ②

② '여직껏->여태껏'

7. 정답 ②

② '있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쓰이는 단어이다. ②번의 '있으시다'는 동사적 활용 특성이 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기본형을 현재형으로 바꿀 때 ‘는다/니다’가 결합하는 것은 동사적 활용 특성이다.

③, ④ 명령과 청유는 오직 동사에만 한다. 따라서 동사적 활용 특성이다.

8. 정답 ②

② 사이시옷은 고유어끼리의 결합이나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에 쓰인다. 반면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단어에는 일부 예외 단어(숫자, 찻간, 곳간, 셋방, 횡수, 뒷간)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마구간(馬廐間)’의 경우 한자어끼리 결합한 단어이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9. 정답 ③

③ ㉠ 고개를 들었더니 아저씨가 보였다고 하였으므로 ‘그랬더니’가 맞고 ㉡ 아저씨를 봤는데 아저씨는 두리번거리며 의외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런데’가 맞다. 또한 ㉢ 나는 아저씨를 알아보았는데 아저씨가 알아보지 못해 손을 들었다고 하였으므로 ‘그래’가 맞고 ㉣ 그때야 비소로 아저씨가 나를 알아보고 얼른 고개를 숙였다고 하였으므로 ‘그러니까’가 맞다.

10. 정답 ②

② ‘자기들끼리 낱길대면서’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고 하였으므로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들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신뢰, 타협, 굳건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맥락은 없다.

11. 정답 ①

①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지칭하는 말로 혈연 관계일 때 쓰는 표현이다. 하지만 식당 등에서 실제로 이모라는 표현을 많이 들을 수 있다. 이는 대상을 좀 더 친근하게 표현하기 위한 의도이다. 따라서 혈연적 관계에 한정되는 표현인 ‘이모’가 의미와 쓰임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대상은 같지만 지시하는 표현이 바뀐 경우이다.

④ 언어의 소멸을 의미한다.

12. 정답 ②

② 기본자로부터 글자가 확장되는 가획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음위치가 ‘윗잇몸’인 기본자 ‘ㄴ’의 가획자는 ‘ㄷ’이다.

오답 해설

① 조음위치가 ‘목청’인 기본자 ‘ㅇ’의 가획자는 ‘ㅎ’이다.

13. 정답 ④

④ ‘굳다’는 ‘근육이나 뼈마디가 뻣뻣하게 되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동사’이다. 반면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의 의미인 ‘굳다’는 형용사이다.

오답 해설

③ 한자 '적(的)' 뒤에 부사나 용언이 오면 '~적'은 부사로 인정한다. '~적' 뒤에 조사가 오면 '~적'은 명사로 인정한다.

14. 정답 ①

① 춘향이가 도련님께 '푸르던 나무같이 안녕히 계시라'고 하였으므로 '나무'는 도련님을 뜻한다. 반면 나머지 시어들은 모두 춘향을 의미한다.

15. 정답 ③

③ '곧바르다'는 '르' 불규칙 활용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곧바르+아서=곧발라서'의 형태로 활용한다.

오답 해설

① '졸다'의 활용형 '존'이 쓰였다.

④ '저렇다'의 활용형 '저러나'가 쓰였다.

16. 정답 ④

④ 순서 배열 문제는 항상 앞 문장의 주요 단어를 뒤에 오는 문장이 이어 받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라)'의 '페턴'을 '(나)'가 받고 '(나)'의 '검색'을 '(가)'가 받고 있다. 따라서 정답이 ④번이다.

17. 정답 ④

④ '여럿 가운데서 골라냄'의 의미인 '선출'은 '선출(選出)'로 쓴다.

오답 해설

① 규율(規律)

② 노쇠(老衰)

③ 추대(推戴)

18. 정답 ③

③ '우리 음악적 시간'을 분석한 뒤 '서양의 음악적 시간'과 대조하여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19. 정답 ①

① 2문단의 내용을 보면 인쇄술의 발전으로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뒤에 올 내용은 ①번이 적절할 것이다.

20. 정답 ④

④ 단순호치(丹脣皓齒):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이르는 말

오답 해설

① 지란지교(芝蘭之交): 지초(芝草)와 난초(蘭草)의 교제라는 뜻으로, 벗 사이의 맑고도 고귀한 사귀음을 이르는 말

② 금란지계(金蘭之契):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을 이르는 말

③ 문경지교(勿頸之交):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